

병인양요와 한성근

- 한 전기소설을 통해 본 분식된 '전쟁영웅'의 일대기 -

趙 宰 坤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1. 머 리 말
2. 책과 필자에 대하여
3. 출생과 초기 활동
4. 프랑스군의 강화도 침공과 문수산성 전투
5. 이재선 사건, 1882년의 군란
6. 이 후
7. 맺 음 말

1. 머 리 말

프랑스 선교사의 박해와 천주교도 학살을 빌미로 한 1866년 프랑스 극동 함대의 조선침입과 그에 대한 조선측의 대응과정을 우리는 병인양요라고 부르고 있다. 병인양요는 흥선대원군이 나이 어린 국왕을 대리하여 정권을

장악하던 시기에 일어났다. 그런데 프랑스와의 初戰인 문수산성 전투의 지휘자로 알려진 인물이 본 작업의 주제인 韓聖根이다. 한성근(1833~1905)은 무관으로서 프랑스 부대의 강화도 침공 당시 문수산성 수성장이라는 미약한 지위에 있었으며, 병인양요 전투현장을 총괄 지휘하던 梁憲洙처럼 무계가 나가는 인물도 아니었다. 그러나 프랑스군의 퇴각 이후 흥선대원군 정권은 전쟁을 조선측의 일방적인 승리로 분식하였다. 동원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홍보효과를 노리고자 하였고,¹⁾ 그 결과 변방의 말단 장수였던 한성근까지도 국가적 차원에서 '전쟁영웅'으로 부각시켰던 것이다. 이는 그를 중앙무대에 진출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고, 그에 관한 많은 일화도 이로부터 파생되었다.

한성근은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군사 훈련기구인 敎鍊兵隊(別技軍, '倭別技')의 지휘관으로 활약하였고, 1881년 대원군 서자 이재선의 국왕폐위 쿠데타 모의사건에 공범으로 거론되어 국문을 받은 적도 있었다. 또한 1882년의 군란 때에는 민중들에 의해 그의 집이 불타기도 하였다. 그는 원래 흥선대원군이 발탁하여 이름이 알려지게 된 사람이었지만 이후 국왕이 직접 정국을 운영하는 시기부터 보수적 색채를 탈피하고 군제 근대화의 일익을 담당하였던 인물로 이해될 수 있다. 만년인 대한제국 전후 시기에는 역사적으로 주목할만한 활약은 없지만 정계의 원로로서 한성관윤과 궁내부 특진관 등 고위직을 제수 받았다.

그러나 병인양요나 교련병대 등에 관한 자료를 살핀 연구자를 제외하고는 그의 전후 행적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것은 한성근이 역사상 큰 족적을 남기지 못하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분야 연구가 그만큼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1) 동원(Mobilization)은 집단이 행동을 전개하는데 필요로 하는 지원에 대해 집합적 통제력을 획득해 가는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Charles Tilly, *From Mobilization to Revolution*, 1978, Addison-Wesley(진덕규 역, 『동원에서 혁명으로』, 학문과 사상사, 1995) 참조.

필자는 최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丙寅洋擾—一名 韓將軍傳—』이라는 1928년에 간행된 소책자를 접할 기회가 있었다. 이 책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는 소장되어 있지 않다. 『丙寅洋擾—一名 韓將軍傳—』은 총 40쪽 분량의 소책자로서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으나 한성근이라는 한 인간의 전체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나아가 병인양요와 이재선 사건, 임오군란 등 격변기의 주요한 사건을 이해하고, 개항을 전후로 한 시기에 정권과 관련된 무관들의 정치적 동향을 파악하는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본 작업에서는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해당 부분의 여타 사료들과 대비하여 그가 생활하던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관련시켜 일부나마 사실을 복원해 보고자 한다.

2. 책과 필자에 대하여

『丙寅洋擾—一名 韓將軍傳—』은 1928년 1월 德興書林에서 출판한 가로 12.5cm, 세로 20cm, 총 40쪽의 소책자이며, 표제 외에 본문 내용은 순국문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의 저자는 宋憲奭으로 책 뒷면 판권에 따르면 그의 거주지는 경성부 水下町 13번지로 되어 있다. 덕흥서림은 경성부 鐘路 二丁目 20번지에 위치하였으며, 서적을 출판·도소매하거나 학생용품을 판매하는 곳이었다. 주인은 金東縉으로 서적 주문판매도 하였다.

이 책은 병인양요시 문수산성 전투의 주역인 한성근의 일대기를 기술한 것이다. 특별한 목차가 없는 책에서는 한성근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연대기 순으로 기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출생, 어린 시절, 청년시절 활동과 무용담, 병인·신미양요시의 戰功, ‘별기군’ 교관, 임오군란과의 관계, 지방관 시절의 일화, 퇴관과 은거, 사망의 순으로 되어 있다. 내용 중간 중간에 무용담, 당대 유명 인사들과 한성근과의 관계를 일화 형태로 기술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만 일반대중을 겨냥한 전기소설인 관계로 역사적 정합성에 근거한 객관적인 내용보다는 흥밋거리이거나 아니면 특별히 과장하여 기술하려는 측면이 적지 않다. 따라서 기술한 내용도 실제와는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많은 자료가 없는 가운데 이 책은 적지 않은 내용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책의 저자 송헌석에 대해서는 달리 알려진 바가 없어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탐문할 길이 없다. 그러나 그는 많은 저술을 남기고 있는데, 현재까지 필자가 확인한 송헌석의 저술을 제목별·간행처·간행연도 별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日韓言文自通』(廣德書館, 1905)
- 『(初等自解)日語文典』(廣學書館, 1909)
- 『(新訂中等)萬國地誌』(唯一書館, 1910)
- 『(自習完璧)支那語集成』(林家出版社[開城], 1921)
- 『速修漢語自通』(博文書館, 1922)
- 『漢語獨學』(廣益書館, 1924)
- 『(最新速成)朝鮮語自通』(朝鮮語學會, 1928)
- 『麗末忠賢錄』(福龍紙物鋪, 1928)
- 『丙寅洋擾—一名 韓將軍傳—』(德興書林, 1928)
- 『美人의 一生』(德興書林, 1963[1968, 不二出版社 복간])

이상 책들의 제목 내용으로 보아 송헌석은 국어·일어·중국어·한자에 능통한 언어학자이자 왕성한 필력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일본어·중국어·한글 관련 어문법 서적과 자습서, 한자 자습서뿐 아니라 지리서와 역사서를 저술하였고, 만년에는 수필집까지 썼다. 언어학적 지식이 거의 없는 필자로서는 그의 수준을 평가할 수 없지만 조선어학회에서까지 책

을 출간하였던 것으로 보아 송헌석은 일정 정도의 위치에 있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저술 시기별로 보면 1905~1910년 사이 3권, 1920년대 6권, 1960년대 1권을 낸 것으로 되어 있어 주로 1920년대 많은 저술활동을 한 것을 알 수 있다.²⁾ 그 중 특히 1928년에 집중되어 총 3권을 저술하였는데, 『丙寅洋擾—一名 韓將軍傳—』도 이때 나온 책이다.

그런데 한성근의 행장을 조사하는 가운데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淸州韓氏 襄夷公派 下世系』에 의하면 한성근에게는 다섯 명의 아들과 두 명의 딸이 있었는데, 첫째 사위는 宋秉潤이고 둘째 사위는 宋憲奭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책의 저자는 장인의 일대기를 상업성을 가미하여 독자들에게 흥미롭게 보여주려고 쓴 것이다. 그러나 책의 어느 내용에서도 그런 것을 암시할 수 있는 구절은 없다.

송헌석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사망하였는가는 확인할 수 없지만, 1833년에 태어나 1905년 사망한 한성근과 저술연도로 보아 일제 식민지시기에 주로 활동하던 막내사위인 그와는 연배상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 때문에 아무리 장인일지라도 한성근에 대한 정확한 사실의 반영은 힘들지 모르지만, 일찍이 한성근과 많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거나 아니면 이후 글을 쓰기 위해 부인이나 처가 사람들을 통해 그때까지 입으로 전해오는 소문과 그가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상세히 탐문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 일대기는 비록 과장이 심한 가공된 전기소설 형태일지라도 다른 자료들과 비교 분석하여 역사학적 정합성을 가미하고 과학적인 시각에서 재구성한다면 일정부분 사실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적지 않다고 하겠다.

2) 일제 식민 지배체제가 나름대로 안정을 찾아가는 1920년대는 족보간행을 비롯한 각종 현양사업이 가장 활발히 전개되는 시기로, 당시 통계에 따르면 총독부 당국에 의해 출판이 허가된 족보는 1920년 63건에서 1929년 178건이며 당시 출판 허가건수 중 가장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신소설로 47~106건에 달한다 (李如星·金世鎔, 『數字朝鮮研究』(第一輯), 世光社, 1931, 133~137쪽).

3. 출생과 초기 활동

한성근의 본관은 충북 청주, 자는 元執이며, 判尹公이다. 증 호판공 用喆의 아들, 증 가선호참공 永彪의 손자이며, 襄夷公 瑞龜의 16대손이다.³⁾ 반면 송헌석의 기술에 따르면 판서 철호의 아들로 되어 있다. 그러나 족보상 그의 아버지 대는 ‘用’자 항렬이었고, 용철과 같은 항렬에 철호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는 아마 호적의 이름과 실제 부르던 이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에게는 景根과 養根 두 명의 형이 있었다. 그의 집안은 ‘잠영거족(簪纓巨族)’으로서 대대로 청주에서 살다가 조부 영표 때부터 고향을 떠나 인접한 괴산으로 이거하였다는 것이다.⁴⁾ 그러나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사망 후 관직을 추증받았으며, 그 자신도 후일 “이 몸은 한미한 처지에서 나라의 은혜를 두텁게 입었다”⁵⁾고 술회한 점으로 보아 家格은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 같다.

한성근의 어머니는 동래 정씨였는데 동해바다가 마르고 황룡이 뛰어 하늘로 오르는 태몽을 꾸고 잉태하여 10달 만인 순조 33년(1833) 8월 3일 그를 낳았다 한다. 그런데 갓 낳은 유아를 살펴보니 ‘용안(龍顔)에 호목(虎目)이요 표두환골(豹頭換骨)’이었다는 것이다.⁶⁾ 그의 출생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무인의 외모와 기질을 타고난 듯하다.

영웅전에 으레 부각되는 내용과 비슷하게 한성근 역시 세살 때 이미 한 통의 물을 거침없이 들었고, 오륙 세에는 완력으로 감히 그를 당할 자가

3) 『淸州韓氏 襄夷公派 下世系』 참조.

4) 梁憲洙, 『丙寅日記』, 1866년 10월 21일에 의하면 ‘文臣 參下 槐山人’으로 기록하고 있다. 다른 자료와는 달리 ‘문신’으로 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5) 『推案及鞫案』 三十, 고종 2 『辛巳大逆不道罪人驥泳等鞫案(乾)』, 1881년 9월 30일.

6) 宋憲爽, 『丙寅洋擾一名 韓將軍傳』, 德興書林, 1928, 1쪽. 이하 각주에서 특별한 원전 제시 없이 ‘앞의 책’이라 한 것은 모두 이 책을 말하는 것이다.

없었다 한다. 7살 때부터 학업을 시작하였는데, 하나를 들으면 열 가지를 체득할 정도로 영민하였다 한다. 그러나 글공부보다는 무예연마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선생의 교훈을 듣고 새기기 보다는 말달리기·활쏘기·창쓰기에 주력하였다 한다.⁷⁾ 괴산군 칠성면 쌍곡리 거주 장빈 식씨의 구술(1982년)에 따르면 “한성근이 벼슬하기 전에 지금 칠성면 쌍곡리 쌍계에서 살고 있었다 하는데 힘이 장사이고 날쌔어 도망가는 범의 뒷다리를 잡아 메어꽃아 죽일 정도”⁸⁾라 하여, 그의 용감성과 완력은 최근까지 전해 내려올 정도로 이 지역의 큰 화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던 중 철종 계해년(1863)에 서울에서 알성과를 본다는 말을 듣고⁹⁾ 응시를 위해 한성근은 서울로 향하게 된다. 괴산을 떠난 한성근은 며칠 후 경기도 안성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그 날 밤 수십 명의 때 도적이 그가 묶고 있던 여관에 침입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여행객의 보따리를 탈취하고 촌락에 들어가 부녀자를 겁박하는 한편, 우마를 빼내어 탈취한 물화를 싣고 대담스럽게 대로로 나아갔다. 이 광경을 목격한 한성근은 단신 적수로 그들을 추격하였고, 순식간에 완력으로 도적들을 잡아 각각 단단히 결박하고 국법을 무시하고 폭행을 자행한 사실에 대해 크게 꾸짖는 한편 일일이 타일러 각처로 해산시켰고, 물건도 주인에게 돌려 주었다.¹⁰⁾

이어 서울로 올라간 그는 그 해에 무과에 장원급제한 것으로 되어 있다.¹¹⁾ 한성근의 제안에 따라 양친은 전답을 판 뒤 서울로 이사하게 되었다. 이 시기 철종이 사망하고 고종이 즉위하였으며, 당시 한성근은 통덕랑 행복사시 봉사로 있었다 한다.

송헌석의 기록에 의하면 이 시기 한성근은 민영익·윤응렬·이범진·조

7) 앞의 책, 3쪽.
 8) 괴산군청 홈페이지(<http://www.goesan.chungbuk.kr>), ‘사이버 문화관광’, 「시루봉에 묘 쓰고 벼슬한 한성근」.
 9) 앞의 책, 6쪽.
 10) 앞의 책, 7~8쪽.
 11) 앞의 책, 9쪽.

희일 등 정계의 주요 관료들과 ‘정의를 상통하고 교분이 친밀’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하루는 판서 민영익이 그의 용력을 시험키 위하여 큰 연회를 배설하고 초대하였는데 이때 민영익이 한성근의 식량(食量)을 시험하기 위해 수십명 분의 음식을 제공하였고, 그는 불과 20~30분에 걸쳐 다 먹고 밥상을 물렸다는 것이다. 이 소문은 서울의 남북촌에 전파되어 가동 주졸(街童走卒)에게도 그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한다.¹²⁾

그런데 실존인물과 대비시킨 이 내용은 특히 과장이 심한 부분이다. 적어도 1865년 이전 단계의 내용서술인데, 그 해를 시점으로 놓고 보더라도 민영익(1860~1914)은 6살, 윤웅렬(1840~1911)은 26세, 이범진(1852~1910)은 14세에 불과하였다. 민영익과 이범진은 각기 1877년과 1879년 문과에 급제하였고, 윤웅렬은 1856년 무과 급제시부터 처음 관직을 시작하였다. 조희일은 1869년에 예조참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후 1894년 황해도관찰사를 한 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 관직생활은 한 사람으로는 한성근과 윤웅렬·조희일 등을 들 수 있겠다. 당시 33세인 한성근과 6세의 민영익은 연령상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

한성근은 을축년(1865) 봄에 군기시찰관의 임무로 수원 출장시 또 하나의 무용담을 남겼다고 한다. 당시 수원유수는 대원군의 오른팔인 이경하이¹³⁾ 그 아들 범진도 수원에 있었는데, 한성근이 한강을 건너 그곳으로 가는 도중 건너편 동작나루에서 이른바 ‘마포팔장(麻浦八壯)’이라 불리던 황건을 쓴 여덟 명의 건장한 장사들이 뱃사공을 협박하고 있었다. 이들은 五江을 돌아다니며 행악을 자행하고 있었으나 당시로서는 누가 감히 어찌할 수 없었다.¹⁴⁾ 그는 조금도 두려운 기색없이 담대하게 한강 백사장에서 홀

12) 앞의 책, 10~11쪽.

13) 비슷한 기간 이경하(1811~1891)가 수원유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병인양요 직후부터였기 때문에 송헌석의 말과는 다소 시기가 괴리가 있다. 1863년 3월 총융사, 1864년 1월 병조판서를 하였던 이경하는 1866년 11월부터 1869년 3월까지 수원부 유수를 역임하였다.

로 이들을 대적하여, 그 결과 8인이 골패 쓰러지듯 일시에 엎어져 일어나지를 못할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어 수원에 도착한 그 날 밤 이범진을 만나 늦도록 대화하던 도중 범진이 또 한번 그의 담력을 시험하고자 하였다. 즉, 전설에 따르면 수백년 전부터 수원부 객사에 소복입은 여자 귀신이 나타나곤 하는데 귀신과 대화할 수 있겠는가 묻자, 한성근은 쾌히 승낙하였다. 삼경에 귀신을 만난 그는 담대하게 연유를 묻자, 귀신은 자신은 경주 김씨로 남편은 수원군 부호 이정언인데, 병자호란시 난리를 피하여 가다가 도적에 겁간을 당하고 객사 후 원 나무에 목을 매어 죽었다고 하였다. 그가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약속하자 귀신은 사라졌다 한다. 이번에는 임진왜란시 장수로 유명했으나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처형당한 이후 민간에서 오랫동안 회자되던 김덕령의 귀신이 들어와 더불어 대화하던 중 닭 울음소리를 듣고 사라졌다. 조반 후 한성근은 열녀 김씨의 정절을 포상 치제케 하고, 김덕령 장군은 위패를 만들어 분향 고축하였다.¹⁵⁾

이러한 일화를 남긴 한성근이 봉상시봉사로 있던 시기인 1866년 9월 프랑스군의 강화도 침공을 맞게 되었다. 이때 그는 순무영 초관의 임무를 부여받아 집사 지홍관과 더불어 문수산성 방어전에 투입되면서 비로소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4. 프랑스군의 강화도 침공과 문수산성 전투

병인양요는 1866년 흥선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사건인 병인사옥을 빌미로 프랑스가 조선에 병력을 투입시켜 침공한 것과 이에 대한 조선인의 항쟁이

14) 앞의 책, 11쪽.

15) 앞의 책, 13~18쪽.

라는 역사적 사건이었다.¹⁶⁾ 병인양요의 전 과정은 1단계 7~8월의 조선침공 계획 논의와 수립과정, 2단계 9월 18일부터 10월 3일까지의 제1차 조선 원정을 통한 조선 서부해안과 한강탐사 기간, 3단계 10월 11일~10월 26일 프랑스 함대의 제2차 조선원정으로 강화도 강제점령과 조선정부군과 문수산성에서의 전투, 4단계 11월 9일~11월 11일의 양헌수 부대와 프랑스군의 정족산성에서의 전면전과 프랑스군의 철수준비 과정, 5단계 11월 12일~11월 21일 프랑스군의 퇴각부터 전시 계엄상황 해제를 통한 전쟁 종결까지의 총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프랑스 함대는 10월 11일 조선으로 제2차 원정길에 올랐다. 다음날인 12일 경기도 남양만의 입파도에 정박한 프랑스 함대는 10월 14일 4척의 군함을 강화해협의 갑곶진으로 보내어 본격적인 상륙작전에 돌입하였다.

2차 원정의 목적을 담은 서한을 조선 측에게 전달한 지 하루만인 10월 15일 프랑스군은 대병력으로 강화성 침공을 감행하였다. 그들은 동문과 남문을 점령, 퇴각한 후 다음날 다시 공격을 전개하여 강화성을 점령하였다.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불법 점령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조선정부는 다음날인 10월 16일 좌의정 김병학의 건의를 채택하여 순무영을 설치하고 기보연해 도순무사 이경하, 종사관 김성근·안기영, 기보연해 순무중군 이용희, 기보연해 순무천총 양헌수, 별군관 이현규·신석범·이병숙·박정화를 임명하여 전투 지휘부를 구성하였다. 이날 자정 무렵 이용희와 양헌수가 지휘하는 부대가 서울을 출발하여 다음날 양화진에 도착하였다. 이후 조선의 군사력은 양화진과 통진·광성진·부평·제물포 일대에 배치시켜 프랑스군

16) 병인양요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들이 참조된다.

崔寅祐, 『丙寅洋擾 小考』, 『歷史學報』 30, 1966.

한국교회사연구소, 『韓佛關係資料(1866~1867): 병인양요』, 『教會史研究』 2, 1979.

金源模, 『로즈艦隊의 來侵과 梁憲洙의 抗戰(1866)』, 『東洋學』 13, 1983.

徐仁漢, 『丙寅·辛未洋擾史』,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9.

권희영 외, 『병인양요의 역사적 재조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조재곤, 『병인양요와 강화의 항전』, 『新編 江華史(상)』, 강화군 군사편찬위원회, 2003.

에 대한 습격 준비와 예상되는 그들의 공격에 대응토록 하였다.

그런데 송헌석은 프랑스군이 양화진 일대 정찰기간 동안 조선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소설에서는 양화진에 군사를 내린 프랑스군이 각처에 방화하고 포를 쏘았다고 한다. 이때 한성근은 관군 삼천을 거느리고 순무사 이경하와 하륙한 ‘덕군’ 수백인을 협공하여 쫓아내고 다시 좌우로 ‘덕함’을 포격하니 조선지리에 익숙하지 못한 극동함대 사령관 로즈(Rose) 제독 등은 감히 대항치 못하고 급히 닻을 감고 도망하였다고 되어 있다. 한성근이 개선하여 장안으로 돌아오니 조야가 환희하고 인심이 안정되었다고 한다.¹⁷⁾ 그러나 이는 사실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서해안 영종도에 프랑스 함대가 나타났다는 보고가 조선정부에 알려지게 된 것은 9월 21일이었다. 다음 날인 22일에는 프랑스 군함 3척이 인천 근해의 팔미도를 경유하여 작약도로 이동하였고, 23일에는 그 중 2척이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 일시 정박하면서 조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수와 해안을 측량하였다. 이러한 사태에 돌입하자 9월 24일 정부 대신을 소집한 흥선대원군은 어영중군 이용희로 하여금 표하군·훈국마군·보군을 거느리고 한강 연안을 엄중히 수비케 하였다.¹⁸⁾

9월 25일 프랑스 군함 2척은 도성의 지척에 있는 한강의 난지도 앞을 지나 건너편의 염창항까지 진입하였다. 이에 조선정부에서는 영종첨사 심영규 등을 프리모게호(Primauguet)에 파견하여 그들의 조선원정 사유를 살피도록 하는 한편, 26일 마군 2초와 보군 7초를 파견하여 프랑스 군함의 진로를 차단하였다. 이에 프랑스 군함 2척은 조선측에 대해 함포 사격 후 다시 서강 양화진으로 진출하였으나, 의외로 조선군의 경비가 삼엄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날 양화진에서 한강 하류 쪽으로 퇴각하였다. 도성에 대한 경

17) 앞의 책, 20쪽. 원래 덕군(德軍)과 덕함(德艦)이라 함은 독일군·독일함대를 말하는 것인데, 송헌석은 프랑스군과 프랑스함대처럼 기술하고 있다. 당시 표현으로 한다면 불군(佛軍)과 불함(佛艦) 아니면 법군(法軍)·법함(法艦)이었어야 한다.

18) 강화사편찬위원회편, 『增補 江華史』, 강화문화원, 1994, 230쪽.

제도 강화시켰다. 그러나 서양함대의 불법적인 조선 진출이라는 준 전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측에서는 프랑스 군인들에 대해 각종 식료품을 제공하는 등 기본적인 예우를 갖추어 그들을 도와주었다.¹⁹⁾ 초기 상황에서는 양국 군대가 큰 충돌이 없었다는 것은 프랑스측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었다.²⁰⁾

홍선대원군은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의로운 마음을 내어 나라를 위하여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먼저 한성부 좌윤 鄭圭應을 소모사로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양화진으로 나아가 백성을 규합토록 하는 한편,²¹⁾ 10월 18일 대대적인 義兵 모집을 결정하였다.

이 기간 강화도를 점령하고 있었던 프랑스군은 성내 민가 약탈과 관아 습격 등을 통해 전리품을 챙기고 있었다. 총검을 소지한 프랑스군 50여 명이 인가로 돌입하여 가축과 의복 등 재물을 남김없이 약탈하고 이어 관사로 난입하여 公私錢 6~7백 냥과 관복, 여러 가지 기구까지도 빼짐없이 가져갔다. 이에 吏屬이 모두 달아나 버렸고 해당 지역뿐 아니라 外村의 백성들까지도 모두 도망쳐 흩어졌다.²²⁾

한편 10월 18일 밤 통진에 도착한 순무천총 양현수는 「巡撫營傳檄洋舶都

19) 예컨대, 9월 24일 김포군수 정기화는 그들에게 소, 돼지 각 1마리, 닭 10마리, 채소 12단, 靑太 6단을, 양천현령 윤수연은 소 1마리, 닭 20마리, 계란 30개, 청태와 白菜 1쪽씩을 제공하였다. 같은 날 부평부사 조병로도 황소 1마리, 닭 20마리, 계란 100개, 감 200개, 배 100개, 부채 10개, 마른 민어 5마리를 프랑스 군대에 전달하였다. 徐仁漢, 앞의 책, 86~87쪽.

20) 당시 해군사관 견습생으로 프랑스 극동함대에 동행하였던 주베르(M. H. Zuber)라는 자도 원정 후 프랑스의 주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였다. “우리가 조선에 대하여 아무런 적대행위도 하지 않았으므로 조선의 현지 주민들은 우리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동안 계속해서 신선한 식료품을 공급해 주었다.” 주베르 저/呂東贊 역, 「1866년 프랑스의 江華島遠征記」, 『文學思想』 82호 1979년 9월호, 312쪽.

21) 『承政院日記』, 고종 3년 9월 9일자.

22) 『承政院日記』, 고종 3년 9월 11일자. 이 같은 현상에 서울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에 대해 송근수는 ‘長安可謂十室九空云’이라고 적고 있다(宋近洙, 『龍湖閏錄』 四(第十八冊), 『西江龍巖洋船來泊(二十八日聞)』, #981, 25쪽).

主」라는 제목으로 다음 요지의 격문을 작성하여 프랑스측에 전달하여 외교적 교섭을 진행시키고자 하였다.

“무릇 天理를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고 國法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표류해 올 때 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옷과 약을 주어 이를 구제하고 식량까지 제공하면서 송환을 주선해 주었다. 그러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몰래 들어와서 조선인 복장으로 變服을 하고 조선을 쓰며 우리 백성을 속이고 풍속을 어지럽히는 자가 있다면 우리나라도 역시 만국공통의 常法으로 이를 처형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번 프랑스군의 1차 침입 때 저지른 불법적 침략행위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인내로 이들을 적대시하지 않았고 호의로써 대하였다. 이번에 프랑스군이 우리 백성들을 죽이고 재산을 약탈한 것은 배은망덕한 행위이며 만고에 없는 야만적인 소행인 것이다. 프랑스측이 자신들의 종교를 우리나라에 전하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학문과 예의를 숭상하고 그대들은 그대들의 학문과 예의를 숭상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각기 자기의 조상을 자기네의 예법대로 숭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千萬大兵을 동원하여 그대들을 토벌하기에 앞서, 내일 아침에 회담에 응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군의 승패는 출병의 명분이 옳으나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대들은 우리의 이 제의를 회피하지 말고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²³⁾

별무사 지홍관을 통해 이 서한은 다음날인 19일 아침 로즈 제독에게 전달되었다. 당일 양현수는 프랑스군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이만규·차재준 등 지역주민들의 안내로 통진에서 강화해협과 갑곶 일대를 관측하였고, 정부에서는 10월 21일 봉상시 봉사 한성근을 순무영 초관에 임명하고 같은 달 24일 ‘운현궁 분부를 받들어’ 50명의 광주부 별파진 군사와 함께 출정시켜 강화도 대안의 김포 문수산성 안에 진입 매복케 하였다.²⁴⁾

23) 『韓佛關係資料』, 236~237쪽.

양헌수는 10월 23일 이삼길 등 포수 20명을 포내리에 전진 배치시켰다. 이 즈음 홍선대원군은 다음과 같은 4개항의 결의를 천명하였다.

- “- .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화진을 허락한다면 이는 곧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 . 또한 그 독을 이겨내지 못하고 교역을 허락한다면 이는 곧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 . 적이 경성에 이를 경우, 이 땅을 버리고 도망치는 일이 생긴다면 이는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 . 만약 六丁六甲의 怪術로 귀신을 불러 설혹 적을 물리칠 수 있다 할지라도 후일의 폐는 邪學보다 더 심할 것이다.”²⁵⁾

조선정부는 문수산성의 일전을 계획하고 있었다. 드디어 계획이 완료된 10월 26일 초관 한성근이 지휘한 부대는 뚜아르(Thouars) 대위의 프랑스군 70여 명을 기습 공격하였는데, 이것이 문수산성 전투이다. 순무영 보고를 통해 이날의 전투상황을 보면, 한성근이 집사 지홍관과 별파진 군사 50명을 거느리고 문수산성을 방수하고 있었는데 당일 낮 작은 서양선박 4척이 조수를 이용하여 곧장 산성의 남문으로 향하였다는 문수산성 별장의 급보를 받았다. 이에 한성근은 급히 군사 1哨를 보내었고, 지홍관과 더불어 군사를 지휘하기 위해 군복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로 황급히 현장에 도착하였다. 프랑스 군함 2척이 정박하려할 즈음 한성근이 용감하게 나서서 크게 고함을 지르며 먼저 총을 쏘았다. 이에 화응하여 50명의 총수가 끝이어서 일제히 총을 쏘자 2척의 배에 있던 많은 프랑스군들이 쓰러졌다. 이러한 사이 뒤의 2척의 배에 타고 있던 남은 프랑스군 100여 명이 한꺼번에 육지에 올라 왔는데, 미처 탄약을 장전할 겨를도 없이 탄환을 맞고 죽은 자가 3인이고 어깨나 팔에 탄환을 맞아 부상한 자가 2인이었다. 그들로

24) 梁憲洙, 『丙寅日記』, 1866년 9월 16일; 『日省錄』, 1866년 9월 13일.

25) 『龍湖聞錄』 四(第十八冊), 『自雲峴書送政府堂上坐起處輪示錄紙』, #994, 45쪽.

서는 조선군에 도저히 대적할 수 없어 도망쳐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군들은 산성 남문의 누각과 민가 29호에 불을 놓고 바다로 모두 퇴각하였고, 한성근 부대는 승전보를 올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²⁶⁾

송헌석은 한성근의 역할이 가장 돋보였던 문수산성 전투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였다. 그에 의하면 프랑스군이 다시 침략하자 한성근이 순무영 초관으로 출전하기를 자원하니 주상이 크게 기뻐하여 당일 그를 유격장군으로 삼고 남한산성 별패군 200명과 곡산병 100명으로 적군을 방어케 하여, 그는 이들을 거느리고 통진으로 들어가 문수산성을 지켰다는 것이다. 이어 적의 육군이 상륙하려 하자 한성근 부대는 일제히 사격하여 적선 2척을 침몰하고 다시 상륙한 적군 수십 명을 사살하였다 한다. 그러나 프랑스군의 반격으로 관군은 통진 대진으로 도망하였는데, 퇴각 과정에서도 한성근은 패장 4인을 데리고 적병을 사살하였고, “주먹을 들어 한번씩 친즉 적군은 두골이 파쇄하여 낫낫이 즉사”하여 마침내 ‘적병 수백을 타살하니 적의 시체가 산과 같이 쌓이게 되었다’는 것이다.²⁷⁾

연이은 무용담은 필자에 의해서 더욱 배가된다. 전투과정에서 한성근은 “적탄 수백 발을 맞아 갑주에 탄환구멍이 빈곳이 없고 더욱 놀라운 일은 망건편자에 탄환이 붙어 철 투구를 쓴 것과 같았다”고 한다. 통진으로 들어온 한성근은 천총 양현수에게 전후시말을 보고하니 양현수는 그의 노고를 크게 위로하고 이후 그를 더욱 신임하였다는 것이다. 돌아온 군사를 점고하니 삼백인 중에 한 사람도 사망한 자가 없었다고 한다. 한성근은 이날 300명을 이끌고 문수산성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이때 야영하던 프랑스군은 한성근 부대의 습격을 받아 대패하여 물에 빠져 죽은 자가 수도 없고 살아 돌아간 자는 몇십 명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관군이 대승하였다 한다. 이때의 승리는 좌선봉 어재연과 협공하여 이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²⁸⁾

26) 『承政院日記』, 고종 3년 9월 19일.

27) 앞의 책, 21쪽.

28) 앞의 책, 22~23쪽. 그러나 어재연은 당시 우선봉으로 강화도 안의 광성보를 수비하고

그러나 정부측의 공식기록과 전기소설의 내용과는 달리 당시 프랑스군과의 전투를 총괄 지휘하고 있던 양현수의 전투일기에 의하면 “한성군과 포수는 전투 과정에서 敗走하여 수유현을 지나 산의 골짜기로 숨었는데 적이 추격하였다. 이때 마침 큰 안개가 계곡을 둘러싸서 지척지간도 분별할 수 없게 되었고, 프랑스군도 추격을 포기하고 이에 모두 돌아갔다. 이것은 王靈이 미친 것이다”²⁹⁾라 하여 한성군 부대는 전투에서 패하여 퇴각하던 중 짙은 안개 덕분에 천우신조로 겨우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고 하여 상반된 해석을 하였다. 요컨대 양현수는 문수산성의 전투는 패전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문수산성 기습전투에서 조선군은 프랑스군 3명을 사살하였다. 반면 조선군 측에서도 광주 별파진의 최장근·김달성·오준성과 문수진의 백성 오돌중단 등 총 4명이 프랑스군의 총을 맞고 전투과정에서 사망하였다. 부상자는 2명이 나왔다.³⁰⁾

프랑스군이 한때 산성을 점령한 후 자진 철수한 이 전투는 전체 전투일정에도 차질을 줄 정도로 우리측이 패한 것이었다. 그 결과 양현수는 계획된 후속전투를 진행할 수 없었다.³¹⁾ 그러나 문수산성의 전투소식을 다음날 듣게 된 고종은,

“이제 서양 오랑캐들이 문수산성에 침입하였을 때에 한성군은 외로운 군사로 적과 맞서 싸웠고 위험을 무릅쓰고 총을 쏘았으며 지홍관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용감히 싸웠다. 선후하여 모든 힘을 다 바쳐 싸운 충성심과 용감성, 적에 대한 높은 적개심에 대하여 매우 가상히 여긴다. 군사들의 마음을 고무격려하고 적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것은 시초가 여기서 부터 시작되었다. 승리하는 날 응당 擢用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³²⁾

있었으므로 사실과는 다르다.

29) 梁憲洙, 『丙寅日記』, 1866년 9월 18일.

30) 『承政院日記』, 고종 3년 9월 21일.

31) 徐仁漢, 앞의 책, 119~122쪽 참조.

KCS I

32) 『日省錄』, 고종 3년 9월 19일.

고 지시하여 전투의 진정한 승패보다는 初戰에서의 상징성과 대중조작을 통한 여론 환기에 크게 주목하였다.

정족산성 전투를 거쳐 프랑스군이 조선해역에서 완전히 물러난 직후 관군은 승전고를 울리고 서울로 입성하였다. 연로의 백성들은 다투어 이들을 환영하였고 정부와 왕실에서도 이들을 크게 맞아들였다. 고종은 특별연회를 베풀고 출전한 장졸들을 치사하고 상을 내렸다. 송헌석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 국왕은 총 맞은 한성근의 갑옷을 보고 탄식하면서 “옛날 항우와 관공은 천하무적이라 하였으되 오히려 같이 목에 들었거든 지금 한성근은 총검이 몸에 침노치 못하니 이는 가위 천장(天將)이며 신장(神將)이라. 짐이 이 같은 장사가 있어 좌우를 보필하니 이제는 근심이 없다”고 하였다 한다.³³⁾ 사실 여하를 불문하고 일부 부풀리거나 과장된 측면이 적지 않은 한성근의 문수산성 전투와 이어지는 양현수의 정족산성 전투는 흥선대원군 정권을 공고히 하는 바탕이 되었고, 이에 따라 참전 장병들에 대한 예우도 각별하였다. 정부에서는 전투에 참여한 장졸과 ‘의병’들의 이름을 비변사의 군공자별단에 올리고 포상하였다. 한성근은 국왕의 명령으로 같은 달 9월 28일 병조좌랑으로 임명되었고, 같이 전투를 지휘하였던 절충장군 지홍관은 오위장으로 특임되었다.³⁴⁾

5. 이재선 사건, 1882년의 군란

후일 한성근의 중앙관료무대의 진출 배경은 병인양요부터 시작된 것이다. 병조좌랑을 하던 한성근은 “전투에서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1867년 5월 평안도 은산현감, 지홍관은 미조항 첨사로 임명되었다.³⁵⁾

33) 앞의 책, 23쪽.

34) 『承政院日記』, 고종 3년 9월 28일.

그러나 현감으로 있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탐관오리로 거명되었다. 같은 해 8월 평안도 관찰사 박규수는 국왕에 보내는 장계에서,

“은산현감 한성근은 형벌을 가혹하게 적용하고 곤장을 사납게 쳐서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아낸 것이 萬金이 넘으니 우선 벼슬에서 파면시켜 놓고 그 죄상을 법 맡은 관청으로 하여금 제의하여 처결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제의하였다. 이에 국왕도 “이 사람을 여기 수령으로 임명한 것은 바로 萬戶를 제후로 책봉하는 예였다. 이번에 죄를 범한 것이 이와 같이 놀랍고 고약한데 어떻게 전날에 공로가 있다고 편안하게 용서하여 줄 수 있겠는가. 해당 부로 하여금 엄하게 형장을 한 차례 친 다음 멀고 험한 곳에 귀양 보내도록 할 것이다”라고 지시하였다.³⁶⁾ 그러나 다음 달 고종은 문수산성 전투에 공이 있다는 이유로 한성근을 방면하였다.³⁷⁾

전기소설에 의하면 한성근은 1871년의 대미 방어전쟁(신미양요)에도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제너럴 셔먼호 문제로 촉발된 미군의 강화도 침공 급보를 접한 한성근은 약간의 군사를 인솔하고 강화도에 도착하였다는 것이다. 소설의 필자는 강화 각 진을 포격하던 미국 군함 수 척을 어재연이 격침시켰고 육전에서 우리측이 일방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소설에 따르면 한성근이 강화에 도달할 즈음 순무중군 어재연은 이미 전사하였고 미군은 산성에 밀집해 있었다. 이에 한성근 등은 용분을 다하여 총을 쏘아 미군 장교 몇 명과 수백 명의 병사를 참살하니 불의의 공격을 받은 적들은 미처 손을 놀릴 사이 없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관군이 뒤를 따

35) 『承政院日記』, 고종 4년 5월 10일.

36) 『高宗實錄』, 고종 4년 8월 26일.

37) “지시하기를 ‘한성근에 대한 지난번의 처분이 어찌 그만둘 수 있는 문제였겠는가. 그러나 생각하건대 작년 문수의 싸움 때에 날래게 먼저 뛰어오른 것은 또한 높이 평가할만한 것이니 특별히 공로를 가지고 죄를 속죄시키는 뜻으로 놓아 보내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高宗實錄』, 고종 4년 9월 22일.

라 치니 그들의 사상자를 헤아릴 수 없었다 한다. 연이어 한성근은 전열을 가다듬어 미국 군함을 공격하자 로저스(Rogers) 제독은 전의를 상실하고 패잔병 백여 명을 싣고 가까스로 도주하였다. 이 승전보가 조정에 올라오니 고종이 크게 기뻐하여 한성근을 정족산성 수성장으로 삼았다 한다.³⁸⁾

소설에서는 한성근이 강화도 일원에 세 번 출전한 것으로 기록하면서 미국과의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되어 있다. 필자는 미군과의 치열한 광성보 전투에서 패전 전사한 후 새로운 ‘전쟁영웅’으로 부각된 어재연을 계속 소설에 끌어들이며 한성근과 의도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그의 위상을 높이려고 한 것 같다. 광성보 전투에서 전사한 어재연의 시신이 돌아오자 홍선대원군은 “魚兵使의 상여를 맞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모두 천주교 인들이다”라고 하자, 이로 인하여 온 조정이 출영하여 수레와 말이 수십 리나 줄을 이었다”는 지적은 당시의 분위기를 적절히 보여주는 한 예일 것이다.³⁹⁾ 병인양요 때 참전하였던 어재연이 신미양요 때 다시 출전하는 상황을 보면 한성근이 참전할 개연성은 적지 않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소설에서 언급한 戰功 그 자체는 실제 상황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

전쟁이 종결된 직후인 1871년 10월에 한성근은 동부승지 겸 경영참찬관 춘추찬관이 되었다가 그 후에 다시 풍덕부사를 재임하였다 한다.⁴⁰⁾ 그러나 대외 방어가 절실하였던 정부에서는 그를 한강 하류지역을 담당케 하여 이후 1880년대 초반까지 한성근은 문수산성 소재지인 통진부사로서 관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즈음인 1873년 홍선대원군이 10여 년의 권좌에서 물러나고 국왕이 직접 정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국왕은 대원군의 권력집중형 강병책에서 벗어나 개화자강의 근대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근대적 군제 마련도 절실하였다.

38) 앞의 책, 24쪽.

39) 黃玟, 『梅泉野錄』 卷之下, 甲午以前.

40) 앞의 책, 24쪽.

이는 1881년 4월 교련병대라는 일본을 통한 신식군대 양성으로 가시화되었다. 이전의 군제는 5군영 체제였으나 이 기간 무위영과 장어영의 2영 체제로 개편하여 이경하와 신정희를 각각 해당 영의 대장으로 임명하였고, 신식군대인 교련병대를 창설하였던 것이다. 이때 한성근은 正領官으로 근대식 군사훈련에 힘쓰게 되었다. 교련병대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군대로 1880년 수신사 김홍집 수행원으로 일본에 다녀온 무위소 별선군관 윤웅렬이 5영의 군사 80여 명을 선발하여 편성한 부대로 근대화된 첨단화기는 물론 신식 군사훈련을 교수받았다.⁴¹⁾ 지휘관으로는 통리기무아문 군무사당상 민경호를 정점으로 하여, 정령관에 한성근, 부령관에 윤웅렬·김노완, 참령관에 우범선 등을 두었고 이범진을 좌부령관으로 추가 임명하였다.⁴²⁾ 그러나 이 부대는 일본군 소위 호리모도 레이조(堀本禮造)를 교관으로 초빙하여 일본식 군사훈련을 시켜서 유생들의 ‘辛巳斥邪 上疏’ 이후 고양되어 있던 대중들의 반일정서를 자극하였다. 또한 구식군대와 비교하여 볼 때 이들에 대한 파격적인 대우는 1882년 군란 발발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일반인들은 이를 ‘倭別技’라 부르며 조소하였다.

송헌석에 따르면 한성근은 1881년에 병조참관 겸 통리기무아문 참획관이 되어 호리모도 등과 훈련원에서 ‘별기군’을 교련하고 다시 총준자제 일백팔인을 뽑아 사관을 교습하는 한편 일본공사 하나부사와 내왕하였다 한다.⁴³⁾ 그러나 외부적으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았기에 그는 흥선대원군 서자인 이재선의 쿠데타 모의사건에 연루되어 몇 차례에 걸친 국문을 받게 된다. 이 사건은 개화정책을 추진하던 국왕을 폐위시키고 그의 이복형인 李載先(?~1881)을 새로 국왕으로 추대하여 이전과 같이 위정적사의 토대위에서 당시 일부 인사들의 현안인 ‘伐倭’를 추진하고 흥선대원군을 정계에 복귀시키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41) 이에 대해서는 崔炳鈺, 『教練兵隊(속칭: 倭別技) 연구』, 『軍史』 18, 1989, 73~125쪽 참조.

42) 崔炳鈺, 앞의 논문, 100쪽.

43) 앞의 책, 24~25쪽.

그런데 사건의 주모자는 승지 안기영(1819~1881)으로 그는 1866년 병인 양요 때 순무영 종사관으로 종군하여 양현수를 도와 프랑스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격문을 기초하기도 한 斥邪論을 주장하던 인사였다. 안기영·권정호 등은 무력동원을 위해 먼저 정예군인 이전 용호영의 병사들 뿐 아니라 강화도 주둔 군병들과 ‘무뢰배’ 및 인천의 포군을 동원하려 하였다. 또한 도성 및 전국 각도의 流民과 장사, 함경도의 汲水軍 등을 모을 예정이었다. 심지어는 노비들의 비밀조직인 劍契員까지 동원하기로 되어 있었다.⁴⁴⁾ 안기영 등은 다른 한편으로는 평창에 있는 교련병대 교장으로 눈을 돌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일본에서 구입한 근대식 소총 30자루를 빼내려고 하였다. 당시 교련병대를 관리하던 통진부사 한성근과 남양부사 윤응렬은 모두 대원군에 의해서 수용된 將臣이기 때문에 그 포섭도 용이할 것으로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개화인사로 변신하였기 때문에 모의에 동의하지 않았고 설득도 불가능하였다.⁴⁵⁾ 이러한 점으로 보아 한성근은 이전 흥선대원군 시기의 쇄국정책을 뒷받침하던 봉건적 武將에서 벗어나 이제는 근대적 군대 양성의 핵심 지휘관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윤응렬 또한 그와 유사한 입장에 있었다.

광주부 소속 장교 이풍래의 밀고로 탄로가 난 역모사건은 미수에 그치게 되었고, 의금부도사를 통해 관련 혐의자는 체포되어 추국청의 엄한 신문을 받게 되었다. 이때 한성근은 윤응렬과 더불어 이재선의 공초에서 거명되어 개별신문과 대질신문을 받게 되었다.⁴⁶⁾

처음 한성근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9월 16일의 공초에서였다.⁴⁷⁾ 이재선은 자신의 심복으로 정원 서리 박정기, 호위군관 유문경, 별군관 이연응,

44) 조성윤, 「개항직후 대원군과의 쿠데타 시도-이재선 사건을 중심으로-」(楊尙弦 편, 『韓國近代政治史研究』, 사계절, 1985, 178~180쪽).

45)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の研究』上, 朝鮮總督府 中樞院, 1940, 760쪽.

46) 『高宗實錄』, 고종 18년 9월 20일.

47) 이하 공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推案及鞫案』三十, 고종 2 『辛巳大逆不道罪人驥泳等鞫案(乾)』, 亞細亞文化社, 1978, 1~222쪽을 참조하였다.

남양부사 윤응렬, 통진부사 한성근·鄭萬戶·채동술 등을 토설하였다. 한성근에 대해 그는 수문장으로 ‘伐倭事’를 오래 전부터 약조한 자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국왕은 도사 박하양으로 하여금 한성근을 잡아다 南間에 가두게 하였다.

그에 대한 국문이 시작되는 것은 그로부터 4일 후인 9월 20일부터였다. 이날 신문관리가 이재선과 ‘心腸內應’을 묻자 한성근은 “이재선과 나는 곧 물과 불 같이 상극이며 평창을 나올 때 잠깐 보았을 뿐이다. 내가 外任 시에 雲峴을 갔을 때 잠깐 보았을 뿐이고 그후 전혀 상종하지 않았다. 어찌 서로 만나 상의한 일이 있었을까?”라면서 그와의 관련성을 극구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전 운현궁에 출입할 때부터 잘 알던 사이라는 점은 토로하였다. 그러자 신문관은 반드시 ‘내응심복’의 말이 있었을 것이니 바른대로 고하라 하자, 한성근은 이재선측의 윤흥섭이 와서 ‘복합군[伏閣軍]과 팔도 負商 기백 명이 장차 평창 교련병대를 어육으로 만들 것이니 빨리 운현궁으로 피할 것을 재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그는 “내가 만약 홀로 피한 즉 同官과 兵隊는 당연히 모두 죽을 것이다. 내가 홀로 산 즉 어찌 큰 죄가 아니겠는가?”라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한다. 또한 윤응렬에게 가서 사실을 말하였고 관에 고하였으니 자신은 역모와 전혀 관계없는 무고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평창을 나오기 전에도 역시 물불같이 상극이었는데?”라는 질문에 “그 전에는 누구도 나를 雲峴人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나를 심복”이라고 한 것은 “이 몸이 君을 받들어 모셔 친밀했기 때문에 이 같은 말이 나온 것이다”라고 하였다.

거듭되는 관련 여부 질문에 대해 그는 이재선과의 대질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대질신문이 이루어졌다. 이때 이재선은 한성근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친지’이자 ‘심복’으로 수 차례 만나 ‘伐倭’를 같이 약조하였고, 사방에 ‘별왜의 말’들이 있는데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물었고, 이에 한성근은 “내가 비록 平倉(교련병대 훈련장소)에 가 있지만 倭人이 우리나라에 두루 미치지 나의 마음 또한 어찌 좋겠는가” 말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뒷부분의 언

급에 대해서는 수궁하였지만 평창의 좋은 소총 30자루를 반출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한성근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시종 주장하였다.

그로부터 10일 후인 9월 30일 한성근에 대한 재차 신문이 있었다. 한성근은 이재선이 자신을 죽이려고 총을 구한다는 설을 유포하였고, ‘사악함에 물들고 재물을 낭비(染邪費財)’하는 ‘평창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는 새로운 사실까지 언급하였다. 같은 날 양인이 또 한 차례 면질하였는데, 국정대신의 의견을 들어 의금부의 문사낭청이 계하여 이재선의 공초에서 ‘伐倭’의 약속, 총을 구한다는 부탁, 화용하겠다는 말 등은 누차 대질해 본 결과 날조 허구로 판명되었다. 결국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어 국왕의 허락을 받아 한성근은 윤용렬·정응기·윤영관 등과 함께 석방될 수 있었다.⁴⁸⁾

남아있는 대원군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신정권의 정략적 계산과 이에 대한 이재선의 한성근·윤용렬 등 신구정권과 관련이 있는 군인 끌어들이기가 그 핵심이었는데, 이러한 내용은 소설에서 별반 부각되어 있지 않다. 송헌석은 단지 대원군 등의 음모로 본질을 풀어가려고 하였다. 그는 “항상 양이를 주장하고 폐위를 꾀하다가 세력이 꺾여 공덕리에 은와하였던 대원왕을 비롯하여 초야의 완고배들은 모두 불평을 품었다”⁴⁹⁾라고만 간단하게 관련 내용을 은유할 뿐이다.

전기소설에서는 일본공사 하나부사(花房義質)와 내왕하는 등 ‘교제가 친밀’하였던 한성근이 “안으로 정교를 닦고 밖으로 일본을 친하여 충의로써 인군을 섬기고 인후로서 사람을 대접하니” 그를 시기하는 자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1882년 4월 한성근은 병조참판에 임명되었고, 같은 해 5월 풍덕부사로 전근하였다.⁵⁰⁾ 이즈음인 그 해 6월 5일 서울에서는 하급군인과 도시하층민의 대규모 난리 즉, 임오군란이 시작된다. 그런데 송헌석은 미시

48) 『承政院日記』, 고종 18년 10월 1일.

49) 앞의 책, 25쪽.

50) 『承政院日記』, 고종 19년 4월 27일; 『承政院日記』, 고종 19년 5월 20일.

적 입장에서 1882년 군란의 원인을 당시 민중에게 살해된 민겸호에게 돌리고 있다. 그의 논지는 군란이 일어나기 얼마 전 선혜청당상 민겸호가 홀로 한성근을 꺼려 해칠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마침 궁중에 불이나 국왕이 거처하던 대조전에 옮겨 붙었고, 겸호는 이것을 기화로 한성근에게 진화하라고 명령하였는데 그는 별기군들을 풀어 이를 해결하였다는 것이다.⁵¹⁾

그로부터 며칠 뒤 민겸호 때문에 불평불만을 품은 각 영문의 구식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때 한성근의 집과 가산집물도 모두 난군의 총화로 전소되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정황에 대해 당시 세간의 소문은,

“군졸들은 먼저 교동 이최응의 집을 부수고 별벌 떨고 있는 그를 죽였다. 군병들은 그가 다시 살아날까 염려하여 긴 창으로 향문을 찢러 창날이 머리와 뺨에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멈추었다. 그리고 나서 ‘장안의 민가놈은 다 죽이겠다’고 호언하면서, 민겸호·민태호·민규호·민두호·민영익·민치서·민치상·민영목·민창식은 종루에 끌려나와 난자질 당하여 죽었다. 또 김보현의 큰 집, 작은 집과 신관호·한성근·윤용렬·홍완·이태응·내영집사 등속과 中人 通倭者(일어통역)의 집들이 모두 파괴되었다. 홍완은 포박되어 죽이려 들자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였다. 그밖에도 閤家와 친근한 사람이나 궁궐에 출입하는 점쟁이·무당들 집까지도 모두 파괴하여 이날 피살된 사람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⁵²⁾

고 기록되어 있다. 흥선대원군을 배반하고 개화정책의 담당자가 되었다는데 대한 구 군인들의 보복 즉, 정치적 전향의 ‘대가’를 치른 것이다. 이때 한성근은 마침 경기수군 사찰을 나아가 돌아오지 못함으로 신변의 위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한다.⁵³⁾ 그런데 난민들이 여러 장수들의 집을 습격 파괴하는 과정에서 양현수의 집에도 들이닥쳤으나 뒤늦게 그의 집이라는 사실을 안

51) 앞의 책, 25~26쪽.

52) 朴周大, 『滬上日月』, 1882년 6월 10일.

53) 앞의 책, 26쪽.

사람들이 “여기는 梁大將의 집이라고 외치고는 무리들을 손짓으로 불러 물러갔다”⁵⁴⁾는 같은 기간의 기록에서 우리는 양헌수와는 극히 대조적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군란의 ‘피해자’로서 한성근에 관한 많은 뒷이야기가 전해질 만한 이 문제에 대해 필자는 더 이상의 언급이 없다. 아마도 이는 그의 행적을 가공하는데 시종 적극적이었던 송헌석일지라도 개항 이후 개화정권의 무원칙성과 결부된 亂民의 공격 대상들에 대한 대중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굳이 변명하려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반박 명분을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6. 이 후

임오군란 이후 군제가 다시 바뀌면서 교련병대는 해체되고 5군영이 부활되는 과정에서 한성근의 역할도 끝나게 되었고, 이후 여러 지방의 관리로서 활동하는 모습이 보인다. 한성근은 1882년 7월 통진병마절제사가 되었다가 1883년 12월 이후 승정원 우승지·가의대부·동지중추부사를 겸임하고, 1886년 이후 풍덕도호부사·평산병마절제사·후영장·토포사·태백수성장으로 있다가 1887년 정월에 정주병마첨절제사·독진장·정주목사가 되었다고 한다.⁵⁵⁾ 한성근은 정주에서도 몇 가지 일화를 남겼다.

그 하나는 그가 이곳에 도입한 지 3년째 되던 봄에 주위의 만류를 무릅쓰고 1천여 년된 괴목을 베어낸 사건이었다. 정주부 동헌에 있던 이 고목은 임진년과 병자년의 난리를 겪은 것으로 정주의 관속배들이 수백 년 동

54) 金允植, 『雲養集』 卷13, 「正憲大夫工曹判書兼知義禁府三軍府訓練院事五衛都摠府都摠管梁公行狀」.

55) 앞의 책, 26~27쪽.

안 관행처럼 초하루와 보름에 치성을 드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에 많은 금전이 들었고, 만약 그 가지라도 꺾는 날에는 반드시 악질에 걸려 회생치 못한다는 소문까지 나돌 정도로 일반인들까지 숭배하는 고목이었다. 그는 육방관속들에게 나무를 베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도끼를 들지 못하였고 그가 보검을 빼어 나무를 치니 관속배가 뒤를 이어 서로 찍어 이 큰 나무는 결국 쓰러졌다.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그 해가 지나도록 부중에 아무 병도 없고 풍년을 맞아 백성들이 더욱 한성근을 우러렀다고 한다. 다른 하나는 射宴時 강철로 제조한 가죽 두른 무게가 천근이나 되는 활로 오 백보 떨어져 있는 과녁을 맞힌 일이었다.

이로부터 평북 일대가 그의 용력을 두려워하여 산에 도적이 없고 밤에 문을 닫지 아니하니 변경이 안도하고 만성이 환락하였으며, 그가 정주에 부임한지 4년 동안 추호도 백성에게 범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거리마다 선정비를 세웠고 사람마다 그의 덕을 칭송하였다는 것이다.⁵⁶⁾

이렇듯 소설에서는 한성근이 과감한 정치와 용력, 백성을 위한 지방관으로서의 덕목 등을 두루 갖춘 인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정부측의 기록에는 이와는 사뭇 다른 내용이 보인다. 예컨대, 1890년 7월 차대시 영의정 심순택이 조세징수 문제와 관련하여 전 평산부사 한성근 등을 의금부에 잡아 엄중히 처벌하도록 주장하였고,⁵⁷⁾ 그 결과 구속되었다가 11월 국왕의 특별지시로 석방된 바 있었다. 또한 1891년 10월 전 황해도 관찰사 이경직은 평산부 백성들이 ‘간악한 鄉廳 소임과 관리들이 백성을 허다히 학대한 사실’을 연명 상소하였는데, 조사관을 파견하여 조목별로 조사한 결과 전 부사 임용준·한성근과 현 부사 권용국이 5~6년 동안 인민을 가혹하게 착취한 것이 86만냥에 이르니 그들을 잡아 올리고 의정부를 통해 엄히 신문하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⁵⁸⁾

56) 앞의 책 28~29쪽.

57) 『高宗實錄』, 고종 27년 7월 5일.

58) 『承政院日記』, 고종 28년 10월 7일.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필자는 해당 시기 핵심 권력자들과 한성근을 대비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탐학으로 부정적인 여론의 대상이 기도 하였다. 소설에 의하면 1891년 봄 선혜청당상 민영준이 한성근에게 다액의 금품을 요구한 일이 있었는데, 이에 응치 아니하였다니 민영준의 참소로 그 해 가을부터 5~6개월 동안 강원도 김화로 정배되는 고초를 겪다가 1892년 봄에 해배되었다 한다.⁵⁹⁾

한성근은 1893년 2월 6일 한성부 관윤에 임명되었다.⁶⁰⁾ 그러나 2월 7일 신정희로 교체되어 그는 하루 동안만 관윤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소설에서는 한성근이 한성관윤 임명 직후 사직상소를 올려 해촉을 비니 고종이 이를 허락하고 가자(加資)하는 한편 인천의 전장 삼백석을 사패지로 하사하였다 한다. 이어 한성근은 가족을 이끌고 전반면(田畔面) 검월리[儉於里]라는 곳으로 옮겨 이후 음풍영월(吟飆迎月)과 어수엽산(漁水獵山)으로 만년을 보냈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 자신을 항상 따라다니던 전 참군 윤홍섭 및 주일환·박일영·이귀·하룡홍·염기섭·장일상 등 7인의 장사를 가까이 두어 이들과 자주 안산의 오자봉 등으로 수렵을 다녔다. 이들은 한성근이 교련병대 교관시절 참교와 부교를 하던 자들로 이후 군수·현감이 되기도 하고 참군·별장이 되었던 자들이라 한다.⁶¹⁾

60세를 넘긴 한성근은 갑오년 이후에는 벼슬을 하직하고 더 이상 세상에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후 그의 관직은 실직이라기보다는 명예직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를 열거하면 1896년 9월 중추원 1등의관, 1899년 11월 궁내부 특진관, 1901년 10월 중추원의관이 되었다. 이 기간 한성근은 약 2년 간 서울의 매동에 주거하였는데, 넷째 아들 영렬이 안면도 파감이 되자 요양하기 위해 그 또한 이곳으로 들어갔다.⁶²⁾ 그는 밀양 박씨 해일(朴海一)의

59) 앞의 책, 29~30쪽.

60) 『承政院日記』, 고종 30년 2월 6일.

61) 앞의 책, 35~36쪽.

62) 앞의 책, 36쪽.

딸을 아내로 두었고, 아들은 감찰 鼎烈, 주사 應烈, 등제 昌烈, 참봉 永烈, 武烈 및 두 딸을 두고 있었다.

한성근은 1902년 5월 5일 정현대부로 품계를 올려 받았다.⁶³⁾ 이는 나이 51세 된 황제가 왕조의 예법에 따라 기로소에 들어가는 의식을 거행할 때 70살 이상인 4품 이상의 전현직 관리들과 80살인 5품 이하의 관리들에게 올려준 것이다. 그는 같은 달 27일 조병식·이순익·서상우 등과 더불어 기로소 당상관으로 임명되어 의정 심순택, 특진관 조병세, 영돈령원사 윤용선 등 최고위 관료들과 같이 황제가 주관하는 황실의 연회에 참석하는 영광을 갖기도 하였다.⁶⁴⁾ 그는 이 시기 황제의 후궁인 嚴妃의 지위를 皇貴妃로 승격시키자는 ‘陞后’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직접 상소를 제출한 바 있다. 이는 명성황후 태생의 황태자 李坫을 보위하려는 세력과 엄순비 태생의 영친왕 李垠을 보위하려는 대립구도에서 엄순비파의 조직적 행동이었다.⁶⁵⁾ 이에 촉발된 각도 유생 223명이 엄비의 지위를 승격시키는 것은 나라의 법이며 백성의 소원에 부응하는 것이니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의 연명 헌의서를 중추원의장에게 올리기까지 하였다.⁶⁶⁾

일련의 황실관련 행사 때문에 상경하여 매동 별저에서 머물던 한성근은 진연을 마치고 그 해 8월 초에 다시 안면도로 돌아갔다.⁶⁷⁾ 1905년 1월 다시 중추원의관 임명을 마지막으로 그의 관직생활은 끝을 맺었다. 그 해 12월 28일 한성근은 노환으로 사망하였다. 이날 밤 말과 같은 큰 별이 안면도에 떨어지고 전면 안산이 5일 동안이나 크게 울었고, 황제는 “이제는 짐의 고굉이 끊어졌다” 탄식하며 장비를 후히 내리고 지방관에게 명하여 치제케 하였다 한다.⁶⁸⁾ 그의 나이 73세 되는 해 겨울이었다.

63) 『高宗實錄』, 광무 6년 5월 5일.

64) 『高宗實錄』, 광무 6년 5월 27일.

65) 森山茂徳, 『近代日韓關係史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87, 137~138쪽.

66) 中樞院, 『照會原本』 1, 광무 6년 6월. 奎 17234.

67) 앞의 책, 37쪽.

68) 앞의 책, 39쪽.

7. 맺 음 말

가상의 세계와 현실을 대비시킨 소설과 관련 사료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 확인 내지 추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실존인물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소설류에서는 진실과 오류의 분기점 확인이 매우 어렵다. 필자는 책의 모두에서 ‘장군의 일평생 행적을 하나도 유루(遺漏)없이 사실대로’ 서술하겠다고 하였으나 과장된 ‘픽션’(怪力亂神)과 ‘년픽션’(史實) 사이를 오가며 서술하고 있다. 그는 역사적 내용과의 관련성을 증빙하기 위해 글 중간 중간에 민영익·이경하·이범진·어재연·민경호·민영준 등 당대 정계의 핵심이거나 비중있는 인물들과 견주어 역사성을 가미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독자들은 적지 않은 오해를 할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인용문의 대부분은 들은 이야기나 필자 자신이 창작한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성을 가미한 내용도 실제와는 다른 부분이 많다. 이것 때문에 評傳 보다는 영웅전 또는 전기소설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듯 『丙寅洋擾—一名 韓將軍傳—』의 주요 서술 기조는 口傳과 ‘작가적 상상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성근의 실제 활동을 복원하기 위해 적지 않은 원전 자료에 근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서술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순수 전기소설로 보기도 어렵다.

다음은 단절과 계승의 문제이다. 하급 무장으로 출발한 한성근은 병인양요를 시작으로 개항 이후 교련병대를 통한 근대적 군제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고, 여러 지방관 활동을 거쳐 병조참판·한성판윤 등의 고위직을 역임한 정계원로로서 ‘陞后上疏’ 제출 등 정치운동에까지 내용의 폭을 확대하였다. 그는 신관호·양현수·윤운렬 등과 더불어 흥선대원군 정권부터 시작하여 고종집정 시기 이후 대한제국 시기까지 넘나들며 오랜 기간 관직생활을

하던 당대 핵심 무관의 한명이었다. 그런데 ‘鞫案’에서 살펴보았듯이 한성근은 근대 군제교육 담당 시인 1881년 단계에서도 명절이나 지방관으로 나갈 때에는 인사를 갈 정도로 ‘운현궁’(홍선대원군)과 일정한 교감을 통하고 있었다. 따라서 통설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1873년 대원군 퇴위 직후 대원군 파-그 중에서도 특히 武將들-가 새로운 정권에서 무자비하게 탄압받아 속방당하거나 벼슬길에도 나아갈 수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음을 알 수 있다.⁶⁹⁾

문장 내용에서 간간히 보이는 필자의 시대인식은 일본의 입장에 경도되어 있음이 농후하다. 즉, 일제 식민통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1920년대 후반 국난극복의 영웅상을 보여주는 상황 설정에 있어서도 의도하였던 아니하였던 간에 체제내적 입장에서 서술하려는 경향이 다분하다. 따라서 1866년 프랑스와의 전투는 크게 부각시켰지만, 당시 일본제국주의와 관련성이 주요 이슈였던 교련병대와 임오군란 문제는 애매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강하고 오히려 일본공사와 한성근과의 친연성만 강조되어 있다.

이 소설에서 필자 송헌석의 주제의식은 무인으로서 한성근의 남과 다른 강한 이미지 부여 시도에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와일드한 인간형은 ‘소설적’인 부분뿐 아니라 실제적인 내용에서도 구분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성근이 전쟁영웅으로 분식되는 계기도 홍선대원군 정권의 동원이테올로기 강화를 위한 상징성 조작의 측면보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무용담을 통해 개인적 측면으로 이끌어가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터에서 패주 생환하였던 한성근은 과연 명실상부한 ‘戰功者’로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의 필자는 이후 명백한 패전으로 판명된 문수산성 전투를 매개로 하여 주인공의 전후행적을 기술하고 있다. 국왕까지도 ‘승전’

69) 이러한 인식은 당시 체야인사인 黃玹(1855~1910)의 저술을 통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민씨척족은 집권 초기부터 과거 홍선대원군 세력 제거에 노력하여, 심지어 ‘아무개는 대원군의 주위에 있던 사람’이라는 무고를 받아들여 대원군과 관계없는 사람들까지도 종종 속박 당하여 벼슬길에도 나갈 수 없었고, 이전 대원군이 설치한 것은 ‘좋고 나쁨을 막론하고’ 모두 개혁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梅泉野錄』 卷之上, 甲午以前).

으로 분석하고자 하였고, 이후 그의 관력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러한 해프닝이 호재로 작용하였던 현실에서 필자로서도 굳이 객관적 판단의 장애 주인공을 내세울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어지는 시기에도 단계별로 무용담 내지는 神力을 부각시킴으로써 소설의 주인공 역할을 지속시키려 하였다. 이는 한성근과 자신의 관계를 숨겨두고 독자들의 반응을 관조하는 필자의 가공된 '영웅 만들기'(작게는 '장인 띄우기')와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속류 상업주의'가 결합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원고투고일 : 2003. 10. 31, 심사완료일 : 2003. 11. 20)

주제어 : 병인양요, 신미양요, 임오군란, 별기군, 흥선대원군, 한성근, 전기소설, 문수산성전투

K C I

<ABSTRACT>

The Korean-France War in 1866 and Han Sung Kun

— The distorted war Hero in a Biography —

Cho, Jae-Gon

Han Sung Kun(1833~1905) was a low level soldier as a sergeant at arms in Munsoo mountain fortress, when the French invaded Kanghwado in 1866. But the Chosun thought that the Chosun gained a victory in the war. So the Chosun made a low level soldier Han Sung Kun to war hero. Han Sung Kun went to central political stage. And many anecdote about Han was made.

He became a military exercises corps commander, and it was first modern military exercise in Chosun. Also he was privy to the Lee Jae Sun's coup plot in 1881. His house was burned by the people in 1882 military coup. He was noted by king's father(Heung Sun Dae Won Kun). Avoiding the conservative, he helped to modernize the Chosun Army.

In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Central Library, I found the book, The Korea-France War in 1866-General Han's life, published in 1928. This book, published by Song Hyun Seok, wrote the Han's life, specially Munsoo Mountain fortress battle's leading part. This book wrote from Han's birth to his death. Definitely this book's index is as follow, his birth, baby period, youth period, activity, distinguished war services in the Korea-France War(1866), the Korea-America War(1871), Byulkikun officer, connection with military coup in 1882, local officer, retirement, death.

Because of biography for the public, this book have many overstatement.

Also this book took information by word of mouth and writers imagination. In spite of that, this book have many data for Han's activity. In this biography, the writer gave general Han soldier sprite. The writer wrote Han's life before and after Munsoo mountain fortress battle. In this book, the writer combined the popular commercialism and great man extol.

Key Words: the Korean-France War in 1866, the Korean-America War in 1871, Byulkikun, military coup in 1882, Han Sung Kun, biography, king's father(Heung Sun Dae Won Kun)

K C I